

土地·我们永远的房子

Barth, Our Ultimate House 大地·私たちの永遠の家

大塚隆雄・上野洋一郎・坂井隆夫・中野浩史監修 松本浩一

石橋大 建築事務所 石橋浩史 石橋洋子 石橋洋子 石橋洋子

Twofold Inspirations by Architect Chō Eiyūjirō and Designer Rihua

「建築の創造」建築家 坂井隆夫・中野浩史・石橋浩史・石橋洋子

土地，我们永远的房子

땅, 우리의 영원한 집 Earth, Our Ultimate House

大地、私たちの永遠の家

中国建筑工业出版社



[韩]

双重想象—建筑师赵秉秀 vs. 书籍设计师李那美

건축가 조병수와 디자이너 이나미의 두집의 영감

Twofold Inspirations by Architect Cho Byoungsoo and Designer Rhee Nami

[韩]

二重の想像—建築家趙秉秀(Cho Byoungsoo) vs. ブックデザイナー李那美(Rhee Nami)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土地,我们永远的房子/
(韩)赵秉秀,(韩)李那美著;
赵秉秀建筑研究所译.

北京:中国建筑工业出版社,2014.10

(书·筑)

ISBN 978-7-112-17235-1

I. ①土… II. ①赵… ②李… ③赵…

III. ①建筑设计-研究 IV. ①TU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4)第208239号

出版策划:沈元勤 孙立波

版权总监:张惠珍

印制总监:赵子宽

设计统筹:廖晓明 孙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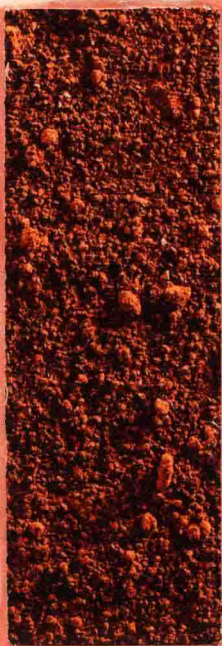
责任编辑:徐晓飞 张建 刘文昕 段宁

责任校对:张慧丽 陈晶晶

英文审读:张纯

日文审读:宇高绫

韩文审读:太红胜



[书·筑]

土地,我们永远的房子

(韩)赵秉秀 (韩)李那美 著,赵秉秀建筑研究所 译

中国建筑工业出版社出版、发行(北京西郊百万庄)

各地新华书店、建筑书店经销

北京雅昌艺术印刷有限公司制版印刷

开本:787×1092毫米 1/16 印张:12 字数:396千字

2016年8月第一版 2016年8月第一次印刷

定价:158.00元

ISBN 978-7-112-17235-1

(25661)

版权所有 翻印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可寄本社退换

(邮政编码 100037)





土地，我们永远的房子

땅, 우리의 영원한 집 Earth, Our Ultimate House

大地, 私たちの永遠の家

中国建筑工业出版社



[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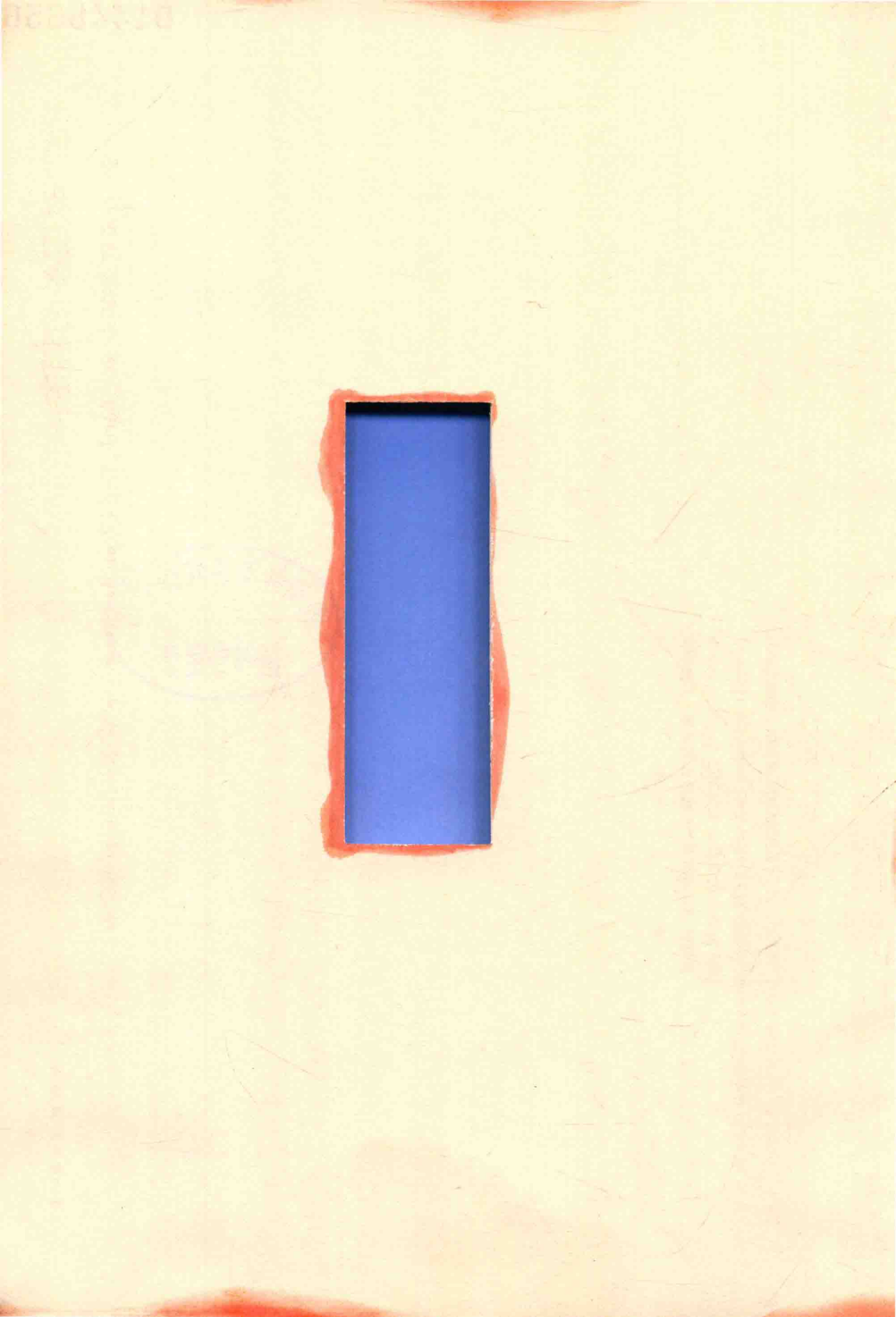
双重想象—建筑师赵秉秀 vs. 书籍设计师李那美

건축가 조병수와 디자이너 이나미의 두집의 영감

Twofold Inspirations by Architect Cho Byoungsoo and Designer Rhee Nami

[韩]

二重の想像—建築家趙秉秀(Cho Byoungsoo) vs. ブックデザイナー李那美(Rhee Na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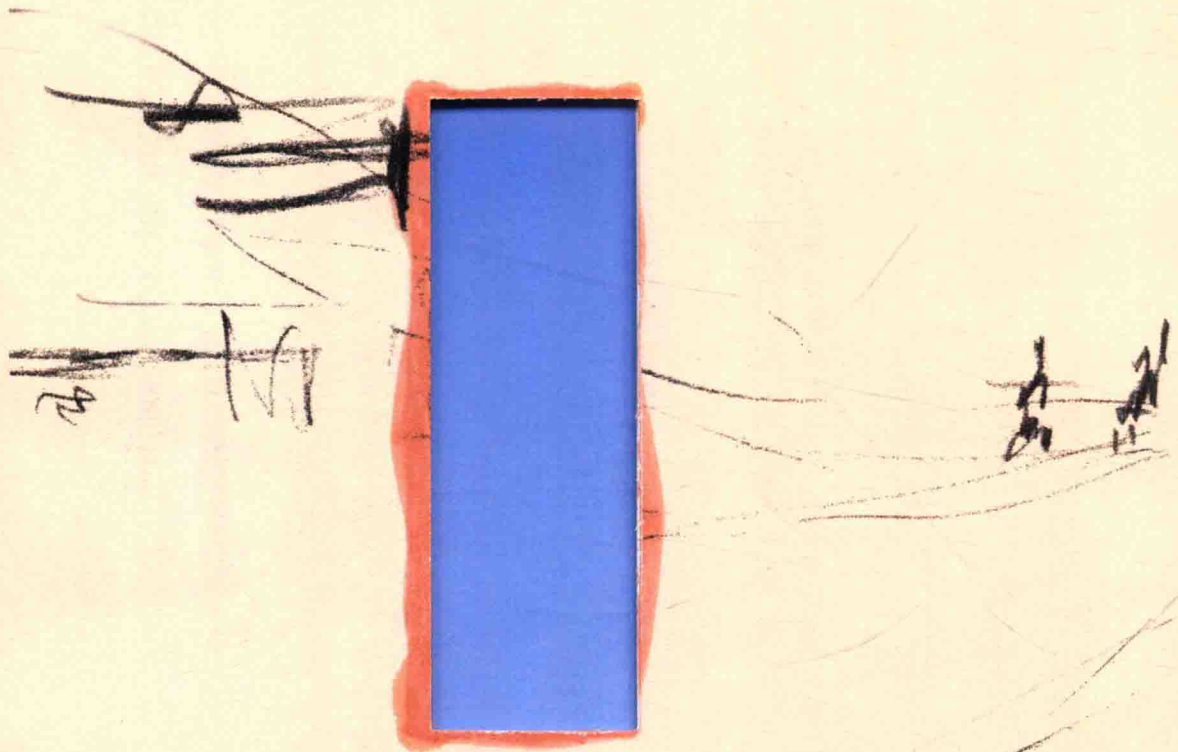
땅, 우리의 영원한 집

Earth, Our Ultimate House



건축가 조영수와 디자이너 이나미의 두겹의 공간

Twofold Inspirations by Architect Cho Byoungsoo and Designer Rhee Nami





땅집 초기 스케치
Earth house, Pen sketch



집 vs. 책

House vs. Book

조 지난번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궁금한데, 이번 전시의 주제가 정확히 뭔가요? 북디자이너가 책을 만드는데 건축가의 작품집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그게 참... 모호해요. 이대준 선생께서는 '장소로서의 집'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집'이 주제인 것 같은데, '서책-책' 전이라는 제목을 통해 유추하자면 글, 즉 생각을 쌓아 집을 짓는 게 아닐까요? 먼저 '책'이라는 '개념적인 집'을 짓고, 전시장에 그 책을 쌓아 '물리적인 집'을 짓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도 같은데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조 '집'이라는게 영어로는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을 말할 때는 '홈 Home'이고 껍질을 의미할 때는 '하우스 House', 안전한 거주지의 의미로는 '셸터 Shelter'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 이대준 선생은 '셰드 Shed'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무언가를 담는 곳'으로서의 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때의 이 '무엇'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그 집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사람을 담으면 'House'가 되고, 생각을 담으면 'Book'이 되고... 동양적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집은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의미도 있어요. '고향'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구요. 좀더 확장하면 '자궁'이나 '무덤'도 집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주' 자체가 집일 수도 있구요. 책은 이 모든 개념을 다 담을 수 있는, 하지만 최소한의 물리적 조건

만을 이용한 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 전시의 주제에 대한 일본과 중국에서의 해석은 어떤가요. 집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시도하는 건가요?

이 글썽요. 아직은 다들 모호한 것 같아요.

조 그러면 집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 그렇진 않아요. 집이란 복합적 의미를 지닌 것이니까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 집의 개념을 영어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한자로 통일하는 방법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가령 '집 가*' 자를 가지고 그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해석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 전시에서 추구하는 집은 복합적 의미를 지닌 집인 것 같아요. 그것을 책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북디자이너의 상상력이 필요하겠구요. 그것을 다시 전시장의 공간

CHO As I was unable to attend the last meeting, I am curious to what exactly is the theme of this exhibition? As a book designer, it does not appear that you are designing a monograph for an architect...

RHEE It is quite... complex. Professor Daejun Lee coined the expression, 'book as a place'. That is why I think 'house' is the theme of this exhibition; a metaphor for a house that is built or stacked by words and thoughts. One begins by building a 'conceptual house' which is a book, and then one stacks the books to build a 'physical house'. Well, I guess it could be understood in a conceptual way, but it is quite difficult to explain in an articulated manner.

CHO There are many ways in English to express the Korean word, 'Jiip' 집, for 'House'. When speaking of a family, it is called 'home' and a building's outer shell or structure is referred to as 'house'. There is also the word, 'shelter', used when describing an inhabitable place.

RHEE Professor Daejun Lee used the expression 'shed', so perhaps a house can also be, 'a place to store things in'. The right or correct word for 'house' can be different as it follows 'how and what' it is used for. If you place a human inside, it becomes a 'house', if you place ideas or thoughts inside, it becomes a 'book'. From the Asian philosophical

perspective, the house is a 'place for the spirit to rest, the mind to find peace' and other similar meanings exist. It can also be a 'place of birth'. If we expand further, a house can be expressed with the concepts of 'womb' or 'grave'. The 'universe' itself can be a house as well. A book can contain all of these concepts. However, it is a house that contains the concepts within its limited physical condition.

CHO What do you think of the Japanese and Chinese analysis of the exhibition's theme so far? Is their reading of 'house' different?

RHEE Well, I think it is still ambiguous to them.

CHO Then, it either may not be a house.

RHEE I don't think that is the case. Defining the meaning of house is complex, so it is possible that various individual interpretations can be expressed.

CHO There may be a concept for house in the English language that unifies all the multiple meanings. Interpretation of Chinese characters might be interesting too. Let us say for example 'Ga' 家 means house, home or family' could be used to



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건축가의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 저는 그런 내용보다는 형식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책을 어떤 형태로 만들 건지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집의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먼저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책의 형태를 계획하는 방식이 더 익숙해요.

조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25년 전 건축계에 새로 나온 이야기인데, '건물을 지을 때 그걸 집으로 쓸 것인지 학교로 쓸 것인지를 정하지 말고 짓자'라는 거예요. 훌륭한 집이나 훌륭한 학

교가 되라고 지은 것이 아닌데 이게 나중에 더 훌륭한 집이나 학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건축물의 전제조건인 '기능'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Form follows function.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 말은 1930년대에 설리반이 한 말이죠. 그가 알바 알토에게 처음으로 이 말을 한 후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했어요. 하지만 2-30년 전부터 나온 새로운 이야기는 이 개념을 부정하지요. "Form does not always follow function. 형태는 반드시 기능을 따르지는 않는다."

이라는 거예요. 공간의 '리사이클' 개념으로 이해해 보면 쉬워요. '로프트 Loft' 공간을 예로 들어볼 수 있겠네요. 창고로 쓰던 게 더 멋진 집이 되기도 하고 갤러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 책의 경우는 'Form follows contents.'나 'Form follows story.'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또는, 'Form follows fiction.'은 어떨까요. 이때 '픽션 fiction'은 하나의 상상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진실,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꾸며낸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디자이너가 제 멋대로 꾸며낸 이야기로는 관객(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형태(책)를 디자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보고 이 개념을 반전시켜, '형태(책)는 반드시 이야기(내용)를 따르지는 않는다.'라고 가정해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 책의 경우는 'Form follows contents.'나 'Form follows story.'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또는, 'Form follows fiction.'은 어떨까요. 이때 '픽션 fiction'은 하나의 상상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진실,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꾸며낸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디자이너가 제 멋대로 꾸며낸 이야기로는 관객(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형태(책)를 디자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보고 이 개념을 반전시켜, '형태(책)는 반드시 이야기(내용)를 따르지는 않는다.'라고 가정해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 책의 경우는 'Form follows contents.'나 'Form follows story.'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또는, 'Form follows fiction.'은 어떨까요. 이때 '픽션 fiction'은 하나의 상상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진실,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꾸며낸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디자이너가 제 멋대로 꾸며낸 이야기로는 관객(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형태(책)를 디자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보고 이 개념을 반전시켜, '형태(책)는 반드시 이야기(내용)를 따르지는 않는다.'라고 가정해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measure and experiment with various cultural interpretations. It could make an interesting exhibition.

RHEE In this exhibition, I believe the house we are seeking carries complex and valuable meanings. In order to connect to the book's idea, the book designer needs creative imagination. Again I think that the creative imagination is needed for the architect in order to connect to the gallery's space.

CHO Rather than content, I believe form is more important. Isn't it possible that the narrative of the house will naturally emerge during the process of thinking about what form the book will take?

RHEE That could be possible as well, but... In my case, I would first find the narrative and in that narrative I would discover more easily the plan and method for making the book's form.

CHO Let me tell you a story. It is about a new architectural philosophy that started almost 25 years ago. The premise was 'let's build without clearly knowing the function of the building'. The purpose, however, was not to build a brilliant house or school, but that the building could become a brilliant house or a school. What I would like to bring up is that through the passage of time, it is notable that architecture should not always be too restricted by function.

This idea, 'form follows function', came from the architect Sullivan in the 1930's. Since then, many people have heard and believed this idea. However, about 30 years ago, people began to contradict this with a new philosophy, 'form does not always follow function'. The concept of 'recycled space' is easily understood. 'Loff' space is an example. A used shed can also be converted into a beautiful house or a gallery.

RHEE Relating this to book design, it could be appropriate to consider the concepts 'form follows content' or 'form follows story'. And also, 'form follows fiction'. Fiction starts with imagination. However, I believe its foundation should translate truth because, I think it would be impossible to design a book that could move the reader with an arbitrary story. But your proposal is that the concept can also be reversed from its common notion and that the form of the book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follow its content.



